

10월 동향

- 04 | 한국노총 경산지부 노조 대표 중국연수-(08)
07 | 제15차 학원정상화 범대위 회의
12 | 제47차 집행부회의
14 | 제16차 학원정상화 범대위 회의
16 | 2010년 직원 어를 마당 운동회
19 | 제48차 집행부회의
20 | 제80차 직원인사위원회 참석
- 21 | 제17차 학원정상화 범대위 회의
21 | 3/4급 행정관리자협의회 회장단 협의
22 | 2학기 차 한 전의 여유 자원봉사 활동
22 | 직원평의원 선출규정에 관한 의견수렴-(25)
26 | 직원평의원 선출규정 제정
27 | 제3대 평의원 선관위 구성 협의
28 | 제18차 학원정상화 범대위 회의

알림터

- 제2회 '한국대학신문 대학교직원 대상' [한국대학신문, 2010. 10. 25]
16명 시상, 11월20일까지 추천서 받아
<http://www.unn.net/News/Detail.asp?nsCode=65357>
http://unn.net/Customer/NoticeDetail.asp?idx_Notice=21
조선대 이사 선임은 '합법' [한국대학신문, 2010. 10. 20]
서울행정법원, 구 경영진 제기 소송 기각
<http://unn.net/news/detail.asp?nsCode=65229>
시간강사 개선책 실효성 있나? [한국대학신문, 2010. 10. 27]
예산확보 강제규정 없고...시급제 여전

"시간강사제 변형안에 불과" 비판 많아

<http://www.unn.net/News/Detail.asp?nsCode=65426>

신뢰 잃은 대학평가 [한국대학신문, 2010. 10. 15]

주요8개대 교수협 이어 대교협도 '거부 성명' 발표
가장수 늘고 신뢰성 떨어지... 정보공시 도입 영향
<http://unn.net/News/Detail.asp?nsCode=65132>

사람대 재정지원 촉구, 사학법 대안 모색 [한국대학신문, 2010. 10. 22]
국가 재정지원 입법 필요성 제기...사학법 대안 수용가능성 높아야
<http://unn.net/news/detail.asp?nsCode=65331>

특집 직장 내 세대차이 극복 프로젝트

▶ 넘을 수 없는 벽을 넘어서

20대부터 40, 50대까지 한 곳에서 일하는 직장에서 세대차이란 어찌 보면 당연한 일. 세대차이를 완전히 없애는 건 불가능하지만 그렇다고 그 차이를 줄일 수 없는 것도 아니다. 세대는 높은 벽을 넘는 방법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 누구에게나 '초딩'이라는 시절이 있다. 그러나 바로 그 시점에서부터 세대차이는 발생하기 시작한다. 당신은 초등학교 때 무엇을 했는가? 그리고 현재 나와 상사, 부하직원들 '세대차이'는 어느 정도일까 체크해보자. <홍보부>

당신은 어느 세대? 진단 테스트

TYPE A

적어도 직장 10년차, 회사에선 노망 취급

이 점수를 받은 당신은 적어도 10년 이상 직장인이다. 한마디로 '나이는 들었어도 마음은 청춘'이 아니라 몸과 마음이 모두 노망이라는 말이다. 솔직히 그동안 후배들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포털 사이트에 검색어를 넣어봐도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가? 더 이상 젊어 보이기 애쓰지 말라. 아쉽게도 부하직원들은 당신을 절대 젊다고 여겨주지 않는다. 혹시 나이는 어떤 때 타임스가 나왔는가? 연인관계도 당신에선 '예쁜놈'이 기질이 다분하다. 지금부터는 고리타분함을 버리고 도래들과 어울려서 제 나이를 찾도록 노력하라.

TYPE B

최소 3년 이상 최대 7년차, 회사 내 고집할 같은 존재

당신은 70년대 후반 80년대 초반에 태어난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 회사에서는 따돌림을 받아 부모 자식 간이라 해도 믿을 수 있는 상사와 신입사원 사이에서 더 역할을 하고 있다. 절만하면 모두에게 사랑받고 못하면 회사 내에서 도태된다. 약간의 우여와 소심한 면 갖췄다면 회사 스타 탄생은 시간문제. 인생의 격동기를 거치는 중인 신입사원과 중년의 길로 들어서려는 상사의 발걸음을 돌려 서로를 이해하도록 하라. 그것이 당신에게 주어진 미션이다.

TYPE C

이력서에 잉크도 마르지 않은 애송이 신입사원

당신은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신입사원일 가능성이 높다. 회사문화에 대해 아직 잘 모르고 아무렇게나 행동하다가 큰 다치기 십상. 주변의 상사와 선배들을 옆으로 이끌며 줄 수 도움을 받을 수도 있는 존재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만약 이력서 작성 이상인데 이곳에 와 있다면 살아있는 인생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것. 당신은 다른 사람에 대해 아직 많이 모르는 어른에 불과하고 있다. 이런 부하직원들을 행거로 নিয়ে 맞게 넓은 포용력을 갖춘 상사가 되어보는 것은 어떨까?

Q1. 초등학교 때 즐겨 먹던 과자는?

a. 신원 카페 맛이 고소한 비즈, 요즘 다시 돌아와 너무 기쁘다. ▶7번으로
b. 공룡그림 쿠키에다 물리쳐서 먹었던 덴마크. 편3개를 한팩으로 굶기로 하나에 30원이었던 것까지 기억한다. ▶2번으로

Q2. 초등학교 때 대학이 난 만화영화는?

a. 전국의 친구들이 볼라트를 사기 발은 피구왕 통기. 사실 통기보다 타이거가 더 좋았다. ▶8번으로
b. 정이의 이름으로 남 용사처럼 있었다며 으뜸을 피구왕 사탕으로 먹은 우주 행성 이름 한 번 걸었다. ▶10번으로

Q3. 그 시절에도 미드는 있었다. 가장 기억에 남는 TV속 미국드라마는?

a. 초록색 피를 흘리며 죽을 것 같은 '집수인' 다이나미의 출연작 'V'. ▶8번으로
b. 시골마을 미니애폴리스에서 LA 할리우드 비버리힐즈로 이사 온 브랜던과 브랜디. 쌍둥이 남매를 주인공으로 한 80년대 '가십걸', '비버리힐즈의 아이들'. ▶4번으로

Q4. 같은 말을 동시에 할 때 외치는 '찌찌찌'에 대한 당신의 반응은?

a. '찌찌찌' 무리라고 말하지 않으면 계속 잊고 있어 한다. ▶5번으로
b. 조금이라도 덜 꼬집히려면 '빨주노초파남보'를 최대한 빨리 외쳐야 한다. ▶8번으로

Q5. 초등학교 때 우상있었던 아이돌 가수는?

a. '왜 난 이리 날'이라는 걸까? 하며 '기적'이라는 춤을 추던 박남궁. ▶10번으로
b. 난 '날아라' 하기가 '동요' 불렀던 하트곡을 내려 보았. 때지 않은 웃음 유행시킨 세태지와 아이들 ▶9번으로
c. 강렬한 춤과 힘으로 이루어진 전사의 후예, 커리어 멜로디의 '캔디'와 주인공 H.O.T. ▶12번으로

Q6. 초등학교 저학년 때 일어난 가장 큰 사건은?

a. 북한이 금강산당을 폭파시킬 경위를 대비한다는 취지로 고 문은 돈 2000원을 성공으로 가져간 경위를 더 감. ▶13번으로
b. 로보가 상모를 들고 제복을 입은 소년인 공룡소년을 끌고 주상기점으로 뛰어오른 88살을 끌고 다니는 '손에 손잡고'를 부르며 큰 격이! 해나가 되었다. ▶9번으로
c. 용왕의 그림 같은 종이가 있어 그림의 끝은을 올렸던 94년 미국 월드컵. 교실마다 수업대신 월드컵을 시청했다. ▶9번으로

Q7. 초등학교 시절 생활 습관

a. '착한 어린이'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야! 라는 캠페인 때문에 9시 명하던 잠자리에 들었다. ▶4번으로
b. 국기에 대한 경례는 오후 5시. 길 가다가도 멈춰서 하는 게 아니라 초화시간에만 했다. ▶3번으로

Q8. 초등학교 때 한 번에 몇 번까지 읽었나? 교실 풍경은?

a. 넓다. 한자 책 채운 60권. 책상, 교실에서 써지나는 가사가 손에 박힌 듯. ▶10번으로
b. 30-40명. 이 멤버 그대로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함께 놀았다. 덕분에 서로 이름은 몰라도 얼굴은 다 안다. ▶11번으로

Q9. 초등학교 때 교실에 있었던 난방 기구는?

a. 교실 한가운데 석탄난로가 위치해 있어 이른 도시락을 올려놓았다. 심지어 빨간기 오자마자 난로 감자를 쪄개어 넣거나 교과서를 찾아 넣기도 했다. ▶13번으로
b. 벽걸이 형 가스보일러 교실 뒤쪽에 2개씩 있어 물에 찼을 실내화를 걸어놓았다. 크리스마스 시즌엔 '부부리 마가'를 부를 때는 풍도로 사용했다. ▶5번으로

Q10. 초등학교 때 했던 검사는?

a. 집에 있는 쥐꼬리를 잡아오는 '쥐잡이' 검사. 첫번째로 머리를 빚으며 하는 '이검사, 석회검사', 흰 쌀밥 싸오면 하나는 '훈식검사' 등 ▶11번으로
b. 재변검사가 무엇인지 아는 모른다. 그런 게 실제로 존재하는 건가? ▶9번으로

Q11. 초등학교 때 도시락의 형태는?

a. 밥알 끝난 문방구 사자에서 된 양은 도시락. 난로에 데워진 도시락을 마구 흔들며 먹는 맛이 일품이었다. ▶15번으로
b. 책가방을 한층 무겁게 만든 것은 도시락. 이때 보은 도시락이 일제나 국산 스테인리스 도시락에 따라 아이들 사이에 각자 나뉘고 있었다. ▶14번으로
c. 영양까지 완벽하게 맞춰진 급식 시스템 덕분에 그저 책가방에 싣기만 하면 되고 오면 된다. ▶12번으로

Q12. 초등학교 때 타고 다녔던 놀이기구는?

a. 무거운 알뜰로 뛰어오르다 스카이가 공룡만 있으면 계산하고 언덕이고 어디든 갈 수 있었다. 또 소인인 말인줄 알 수 없는 말들의 형상에 동행한 물이 매력적이었던 호퍼도 초성의 기구 중 하나였다. ▶13번으로
b. 토성의 고리처럼 생긴 곳에 몸을 걸고 뛰어다녔던 U.F.O. ▶11번으로
c. 롤러스케이팅에서 한층 진화한 인라인. 특히 중국산 말고 미국 롤러브레이드의 인라인이 특별한 인기였다. ▶15번으로

Q13. 초등학교의 문화생활

a. 일터나 있을 때 다른 할아 세 워아 지지까지 읽고 깨끗한 올컬 구원이 가능했던 커다란 라디오. 녹음도 가능했다. ▶11번으로
b. 일터에서 들어온 초소형 라디오. 워크맨. 이 기계를 이용할 때는 헤드폰을 머리에서 쓰고 워크맨은 머리춤에 차 줘야 했다. ▶14번으로
c. 줄 시는 집 아이들이 어떻게 CD플레이어를 들고 다녔다. ▶15번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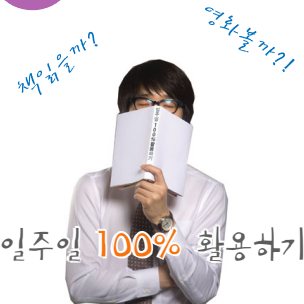
Q14. 초등학교 때 유행한 책가방은?

a. 바퀴를 돌려가 바깥이 열리는 쓰리세븐. 가방에 하얀, 불리, 캔디 등의 캐주얼이 새겨져 있었다. ▶10번으로
b. 할리우드 스타들의 혹은 전소프츠 여기에 나이가 백프로 동화까지 갖추면 아이들의 관심을 한 몸에 집중시킬 수 있었다. ▶10번으로

Q15. 초등학교의 여가생활

a. 딱지치기나 종이인형 문방구에서 100원을 내어 30개의 딱지와 20개의 옷을 마구칠 수 있었다. 누가 땀이 기웠는지나 누가 부를 상하했는지 이때부터 아이들 교란이 가능했다. ▶10번으로
b. 텀블링, 아베라리, 엄마리 정도는 텀블링의 기본. 다른 꽃기, 재주넘기, 백발백중, 줄해 텀블링 중 한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13번으로
c. DDR 혹은 펌프 '웃기다' 마로 시작하는 노바스키스 레에 맞춰 격렬하게 스텝을 밟아주어 스트레칭 끝났다. DDR과 펌프파가 나뉘어 있었다. ▶10번으로

Media



일주일 100% 활용하기

평일에 열심히 일했으니가 주말에 꼭 쉬는 것은 당연한데, 요즘 매주 동원이다 하고 해서다. 연수다 시달리다보니 좀 아파도 학교 생각이 든다. 그렇다고 모처럼 일정한 주말, 핑퐁 거리는 게 능사는 아니겠조.

» 신의 그릇
신한균 지음 | 아우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도예가가 임진왜란 당시 일본으로 끌려간 조선 사기장(도공)의 삶에 그렸다면? 대를 잇는 도예가로 유명한 자자가 할아버지 세대의 슬픈 이야기를 집필에만 2년을 쏟아 완성했다. 자료 수집은 무려 10년. 신성한 재료를 완벽한 기술로 빚고자 하는 도공의 슬픈 이야기.
! 읽는 내내 불가마 앞인 듯 아미에 땀이 맺혔다

» 마을사전
김소연 지음 | 마음산책
구슬게 울조리는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라는 가사처럼 몸은 하나지만, 마음은 하나가 아니다. 마음은 흐르는 물과 바람처럼 변화무쌍하다 하. 그렇기에 알아차리기도 어렵고, 읽어 내기도 어려운 것이 바로 마음.
! 마음에 관한 사전이자 마음 여행의 길잡이

» 부당 거래
류승완 감독 | 황정민, 류승범
2010년 대한민국을 뒤흔든 이벤트! 법인이 없으면 만 들어! 은 국민을 충격으로 몰아넣은 연쇄 살인 사건. 계속된 검사 실패로 대통령직 직접 사건에 개입하고, 수사 도중 유력한 용의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경찰청은 마지막 카드를 꺼내든다... 올해 한국영화 최고의 걸작!
! 류승완 감독, 드디어 감 잡았다

» 레터스 투 줄리엣
아만다 사이프리트(람미미) 작가 지망생 소피는 전 세계 여성들이 비밀스런 사랑을 고백하는 '줄리엣의 발코니'에서 우연히 50년 전에 쓰인 러브레터 한 통을 발견하고, 편지 속 안타까운 사연에 답장을 보내는데...
! 과거로부터 러브레터, 나의 사랑을 바꾸다!

- 11.03 최정환 그린캠퍼스팀
11.03 박주희 국제교류팀
11.04 강진아 수업학적팀 109.28
11.05 성일재 교육대학원 109.29
11.11 김세영 그린캠퍼스팀
11.11 김영숙 학생지원팀
11.11 우철봉 정보통신운영팀 1010.06
11.12 신순애 법과대학 1010.07
11.13 서영화 기획팀 1010.08
11.15 이희돈 중앙박물관
11.16 장성태 도서관정보팀 1010.11
11.20 안태희 총무팀 1010.15
11.21 은용환 정보통신대학 1010.16
11.22 박현구 사범대학 1010.17
11.22 이은실 조형예술대학
11.23 사순준 정보화개발팀
11.25 박승진 정보통신대학
11.26 김영근 수업학적팀 1010.21